

은행 마감시간 원래대로 복귀? “비대면 적응” “대면 늘면 환영”

창구 업무 '1시간 단축' 1년4개월

광주은행 올해 1~11월 비대면 대출 1만1600건 '40% 급증'

예금 가입 188%·적금 88% 증가...단축 후 창구 고객 4만 감소

내년 실내 마스크 완전 해제 후 영업시간 유지 여부 귀추 주목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은행 영업을 1시간 단축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다. 소비자들 비대면 금융 업무에 적응하면서 예·적금은 물론 대출 신청도 창구에 가지 않고 온라인 방식으로 하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15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 까지 스마트뱅킹·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을 받은 건수(좌수)는 5만54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만34건)보다 38.4% (1만5383건) 급증했다.

전체 대출 금액은 7268억원에서 1조695억원으로, 47.1% (3426억원) 뛰었다. 비대면 대출에 대한 거부감이 점차 사라지면서 대출 수요자들의 담력도 커졌다. 같은 기간 대출 1건당 평균 금액도 1820만원에서 1930만원으로, 100만원 가량(6.3%) 늘었다.

광주·전남 등 비수도권 은행들이 본격적으로 '오전 9시 반 개점·오후 3시 반 폐점'을 해온 건 지난해 7월 말부터다.

기존 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4시)보다 한 시간 줄인 것이다.

애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끝나는 시점(2021년 8월6일)까지 단축 영업시간을 적용한다는 방침이었지만,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영업시간이 원래대로 늘어나지 않고 있다.

지역민들의 비대면 예·적금 가입 증가는 대출보다 훨씬 활발하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광주은행 예금 비대면 가입 건수는 6만1283건으로, 1년 전(2만1303건)보다 187.7% (3만9980건) 뛰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예금금리도 오르면서 예금에 넣은 돈은 같은 기간 5943억원에서 1조9434억원으로, 227.0% (1조3491억원) 급증했다.

비대면 적금 가입 건수는 지난해 6만1612건에서 올해 11만5822건으로, 88.0% (5만4210건) 증가했다. 적금 금액도 1565억원에서 1629억원으로, 4.1% (64억원) 늘었다.

비대면 금융업무가 급증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광주은행 창구를 찾는 고객은 크게 줄고 있다.

광주은행이 뽑아진 창구 번호표를 세보니 올해 1~11월 창구 방문객은 223만명으로, 1년 전(247만명)보다 9.6% (-24만명) 줄었다.

은행권이 본격적으로 영업시간을 1시간 줄인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창구 고객 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4만명 가까이 감소(260만명→246만명)했다.

한편 내년 초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은행 영업시간도 원래대로 늘어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의 '주 4.5일제 도입' 요구를 보면 영업시간 정상화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대면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과 오후 3시 반까지 은행 창구에 가기 힘든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영업시간 단축으로 인한 불편과 피로감이 쌓이고 있다.

이 때문에 고령 이용자가 많은 지역 농·축협 영업점(광주 110개·전남 460개)과 신협 지점(105개) 등 비은행권은 애초 영업시간을 줄이지 않거나 고객 수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지역 농·축협의 경우 스마트폰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이용객이 많아 영업시간을 단축하기 힘들다"며 "단축 영업을 하더라도 장이 서는 날에는 정상 영업하거나 영업 시간이 아니어도 업무를 봐주는 조합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 영암 FI 경주장 3000만원 후원

광주은행이 최근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활성화를 위해 3000만원의 후원금을 전했다.

광주은행은 영규승 부행장이 최근 전남개발공사를 찾아 장중모 사장과 업무협약을 맺고 후원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은 국내 모터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 체육시설이다. F1블록과 상설블록, 오프로트, 카트경기장 외에도 한국자동차연구원, 야구장, 오토캠핑장 등이 갖춰졌다.

한 해 평균 10만여 명이 방문하면서 지역경제 발전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중모 사장은 "지속적인 모터스포츠 저변 확대와 국제자동차경주장의 활성화에 힘써 지역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광주은행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영규승 부행장은 "국제자동차경주장이 지역민의 공공체육시설로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문화공간으로 발전해나가기 바란다"며 "전남·광주 대표은행으로서 지역의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전남벤처기업인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ICT/SW 기업인 등 '송년의 밤'

(사)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는 지난 14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및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과 공동으로 '2022 광주전남벤처기업인 및 ICT/SW 기업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최근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로 인한 불황에서 지역 벤처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 간 협력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으며, 올 한해 지역 경제발전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포상했다.

'올해 유공자 포상'은 광주시장 표창을 받은 김용수 ㈜비온시이노베이터 대표를 비롯해 총 25명이 광주·전남 벤처기업 및 ICT/SW 기업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 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탁용석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2023년에도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 및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과 함께 경쟁력을 갖춘 지역 벤처기업인 및 ICT/SW 기업인들의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을 포상했다.

'올해 유공자 포상'은 광주시장 표창을 받은 김용수 ㈜비온시이노베이터 대표를 비롯해 총 25명이 광주·전남 벤처기업 및 ICT/SW 기업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 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탁용석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2023년에도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 및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과 함께 경쟁력을 갖춘 지역 벤처기업인 및 ICT/SW 기업인들의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광주·전남 지난달 5억2600만 달러 흑자

1~11월 수출 전년 대비 16.5% ↑ 반도체·수송장비·타이어 증가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무역수지는 5억26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5일 광주본부세관이 발표한 '2022년 11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0% 감소한 49억8900만 달러, 수입은 1.9% 감소한 44억6300

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5억26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계기준으로 수출은 전년 대비 16.5% 증가, 수입은 35.4% 증가해 76억8800만 달러 흑자의 무역수지를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의 지난달 수출은 전년 대비 6.2% 증가한 15억4800만 달러, 수입은 0.6% 감소한 7억100만 달러로 8억4700만 달러의 무역흑자를 나타냈다.

반도체(33.7%)와 수송장비(14.1%), 타이어

(3.3%) 수출이 증가한 반면, 가전제품(-25.0%) 및 기계류(-7.8%)는 감소했다.

전남의 수출은 전년 대비 7.9% 줄어든 34억4100만 달러, 수입은 2.2% 감소한 37억62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3억21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석유제품(37.4%)과 수송장비(36.01%), 기계류(3.7%)의 수출은 증가했으나, 화장품(-38.7%)과 철강제품(-32.0%)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희망 산타 원정대 발대식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이동훈·앞줄 오른쪽)는 15일 광주시 서구 광천동 점포 1층 광장에서 20번째 '희망 산타 원정대' 발대식을 열었다. 광주신세계는 후원금 1000만원을 광주시 서구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에 전달해 64가구에 연탄과 난방유, 난방비를 지원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화물연대 파업에 올해 10조4000억 경제 손실”

한국경제연구원 밝혀

올해 두 차례 화물연대 파업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10조4000억원 상당의 직간접 손실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안전운임제 일몰을 연장하면 연간 2조7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5일 '화물연대 파업과 안전 운임제 연장

및 확대의 경제적 비용'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연산일반균형(CGE) 모형으로 경제적 손실 규모를 추산했다. CGE모형은 정책 변화 등으로 생산·소비·투자·수출입 등 대내외 변수가 상호반응을 통해 어떤 효과를 발생시키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한경연은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산업별 피해 규모(5조8000억원)에 간접적 경제손실을 추가하

니 총 10조4000억원에 달하는 피해액이 산출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0.52%에 해당하는 규모다.

아울러 파업으로 투자와 수출, 고용이 각각 0.32%, 0.25%, 0.17%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한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운임 인상을 이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매년 2조7000억원, 총 8조1000억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고용과 수출은 연 0.04%와 0.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합뉴스

광주국세청 지역 청소년에 장학금 후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윤영석)은 최근 한부모가정과 기초생계급여 수급가정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모범적으로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후원했다고 15일 밝혔다.



오물 등을 수거하는 등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박기용 기자 pboxer@

광주국세청은 명절과 연말연시 직원들이 바자회 등에 참여해 얻은 수익금을 모금해 장학금을 마련했다.

관내 지방자치단체와 복지단체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초·중·고·대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등 각 1명씩 총 4명을 선발한 뒤 학생들을 청사에 초청하거나, 직접 가정을 방문해 격려하고 장학금을 수여했다. <사진>

윤영석 청장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작은 사랑의 손길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꿈과 희망을 잃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국세청은 최근 정부광주합동청사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클린환경 조성 행사'를 열고, 직원 50여명이 산책로와 주변 도로에 버려진 쓰레기,

주담대 대출금리 또 오른다

코픽스 0.36%P 오른 4.34% '12년 10개월래 최고'

최근 한 달 사이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P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0.36%포인트 또 올랐다.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0월(3.98%)보다 0.36%포인트 높은 4.34%로 집계됐다.

2010년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발표되기 시작한 이래 12년 10개월래 가장 높은 수준이고, 10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최고 기록 경신이다.

시중 은행들은 16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한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합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코픽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고,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의 경우다.

잔액 기준 코픽스도 2.85%에서 3.19%로 0.34%

포인트 높아졌다.

신규 취급액 코픽스와 잔액 기준 코픽스에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에 보증서, 한때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 수신품의 금리가 반영된다.

2019년 6월부터 새로 도입된 '신(新) 잔액기준 코픽스'(2.65%)도 한 달 새 0.29%포인트 상승했다. 신 잔액기준 코픽스 역시 통계 발표 이후 3년 5개월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60.97(-38.28)
↓ 코스닥	722.68(-6.32)
↑ 금리(국고채 3년)	3.536(+0.006)
↑ 환율(USD)	1303.10(+6.80)